

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

- 수도권 개발압력과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교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기마스터 플랜수립과 21세기 파주시의 미래예측 및 발전전략 등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개발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계획적 개발을 설정·유도시키기 위한 「파주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안」에 대해서는
- 교하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파주도시기본계획의 1단계 개발계획인 교하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서 운정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을 보면 커다란 톱니바퀴 모양 둘썩날썩한 형상으로 되어 있어 교하지역 개발계획 및 파주도시기본계획과 연계성이 적을 뿐만아니라 난개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좀더 정형화된 모양으로 변경하여 도시기반 시설등이 교하개발 계획의 틀과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하며, 고양시계 지역의 녹지대 조성은 향후 그 린벨트화 되어 또 다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녹지대로 용도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
- 개발지구를 개발추진 지역과 개발유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(개발추진지역 : 70%, 개발유도지역 : 20%) 최근 일련의

택지지구 지정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과 특히 공공개발로 인한 획일화된 도시개발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민간 개발 위주인 개발 유도지역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- 교하지역을 중심으로 한 파주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 계획안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개발계획이므로 지역주민이 납득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고 또한 이들 지역 주민의 전업·이주 등의 대책도 강구하기 바람

- 파주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안은 금촌·교하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계획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

2001년 3월 7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